

여수에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상용화 플랫폼

여수산단에 2021년까지 219억 들여 국내 최초 조성 전남도-여수시·KCL·한국화학연구원과 업무 협약

여수에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 전환·활용(CCU) 제품 상용화 지원 플랫폼이 구축된다.

전남도는 7일 여수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연구원과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확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연구기관이 협력해 이산화탄소 전환·활용 분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추진됐다.

이산화탄소 전환·활용이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화학제품 생산, 재생연료 전환, 친환경 고분자 생산 등에 활용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여수 국가산단 삼동지구에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219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 전환·활용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광양민권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

화탄소를 포집·활용하는 기술 및 산업을 활성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및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양민권은 이산화탄소를 고정 또는 전환할 수 있는 산업 부산물 및 부생가스가 풍부하며, CCU 기술 활용이 가능한 발전·석유화학·철강 등 관련 제조업체가 밀집해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다.

플랫폼에서는 시험평가 장비 및 시스템 등 관련 기술 및 인프라가 집적화돼 ▲CCU기술 및 활용 제품의 통합 시험분석 평가 지원 ▲CCU 분야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기술지도 및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연안 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4개 기관은 ▲이산화탄소 자원화산업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험·인증 관련 기반 구축 ▲권역 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CCU 사업 모델 수립·검증 및 확산 ▲CCU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이산화탄소 전환·활용 상용화 지원센터가 정부의 탄소자원화 전략사업과 연계하는 국내 CCU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택시 운전사’ 속 브리사 택시 국회 간다

10월 16일~20일 국회 전시 유네스코 등재 5·18기록물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영화 ‘택시운전사’ 속 ‘브리사 택시’와 유네스코 등재 5·18기록물이 오는 10월 서울 국회에서 전시된다.

영화 속 김사복 역할을 맡은 배우 송강호와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 분)가 광주 도심 곳곳의 현장 현장을 누리며 뒀던 브리사 택시는 광주시청 등지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7일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진행했던 위르겐 힌츠페터 추모 사진전

‘아! 위르겐 힌츠페터 5·18 광주진실 전 그리고 택시운전사’ 전시회의 사진과 전시물, 브리사 택시 등을 국회에서 전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6일~20일이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5·18의 생생한 현장과 역사가 담긴 5·18기록물도 함께 선보인다.

광주시는 이번 전시를 통해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 헌법과 추진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8일 개막하는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도 이 브리사 택시가 전시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측은 오는 10월 9일까지 32일간 브리사 택시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로비에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속가능발전 광주비전선포 퍼포먼스
윤장현 광주시장이 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푸른광주의 날 기념 물순환 국제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과 지속가능발전 광주비전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환경공단, 전통시장 활성화 ‘국밥데이’ 캠페인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환)이 8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국밥 집을 찾아 밥을 먹는 ‘국밥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국밥데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8일의 숫자발음 구팔이 마치 ‘국밥’처럼 들리는 것에 착안하여 매년 9월 8일을 국밥 먹는 날, ‘국밥데이’로 지정한 캠페인의 이름이다.

공단 직원 20여명은 광산구 송정매일 시장을, 향동사업소 15여명은 동구 남광주 시장을 찾아 점심으로 국밥을 먹은 후 경영평가 시상금 등으로 받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생필품 등을 구매할 계획이다.

또 시설정비 등으로 외부에 나가지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광주·하천유역 및 송대사업소에서는 구내식당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미리 시장에서 구매해 직접 국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안용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소박한 서민 음식인 국밥으로 직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서민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밥으로 소통한 데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I-Plex광주’ 지역 청년창업 메카 자리매김

스타트업·중기 등 44곳 입주 동명동서 개관 1주년 기념식

‘I-Plex(아이-플렉스)광주’가 개관 1년 만에 지역 청년창업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8일 오후 동명동 I-Plex광주에서 유망스타트업(벤처창업기업)과 입주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해 개관 1주년 기념식을 한다. 또 100억원 규모로 결성된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 업무협약도 한다.

지난해 개관한 I-Plex광주에는 유망스타트업 12곳과 지식기반 중소기업 32곳이 입주해 있다. I-Plex광주는 사립화 자금, 입주공간 무상지원, 맞춤형 성장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한다. 창업카페, 정보검색실, IR룸 등 창업자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형성 등도 지원한다.

비즈스튜디오는 3D프린터, 3D스캐너 등 9종 36대의 시제품 제작 기구를 비치해 창업자의 제품기획, 시제품 제작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콜리코너인베스트먼트(펀드 운영사) 등이 창업펀드 업무협약을 한다.

주요 출자는 시 20억원, 모태펀드(국비) 60억원, 광주은행 5억원, 산업은행캐피탈 5억원, 개인투자자 5억원, 운영사 5억원으로 펀드 운영기간은 8년이다.

광주시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도 투자자를 찾기 못해 어려움을 겪던 지역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와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추석 앞두고 불법 어업 특별단속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으로 인한 불법 어업 및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가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 주관으로 16개 연안 시·군이 참여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판매 행위, 선박 안전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 양식시설, 조업 금지 구역에 침범하는 어선어업 등이다.

수협 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 금지 채종 및 어구 사용 금지 기간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보관·판매 행위로 단속한다.

최근 각종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항로 주변 무면허·어장 이탈 불법양식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고질적인 민원 해역인 완도·고흥·약산 해역의 불법 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김 양식이 고소득 품종으로 각광받으면서 무면허·초과 등 불법 시설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흥·완도·진도·신안 주요 김 양식 장 해역에도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의 어린 물고기까지 씹쓸이하는 기업형 근해어업의 조업 금지구역 위반, 선망어선 등 변형어구 사용, 잠수기어업 등 허가 조건 위반 등도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한전공대 입지 선정·소농 지원대책 등 질타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7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전체 농가 중 65%에 달하는 소농에 대한 지원대책, 한전공대 입지 선정, 공동주택 품질검수 문제 등에 대해 질타했다.

우승희 의원(민주·영암)은 “전남 농가 65%가 1ha 미만의 소농”이라며 “농업인 최저생계비나 농업인 생활수당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전남 농가는 15만1000가구였다. 이 중 경지가 없는 농가는 1000가구(0.7%), 0.5ha 미만은 6만6000가구(43.7%), 0.5~1ha는 3만1000가구(20.5%)로 모두 9만8000가구(64.9%)가 1ha 미만 소농이었다. 소농 비율은 전국 평균(70.2%)보다 낮았지만, 고령층 비율은

전국 평균(40.3%)보다 높았다.

이민준 의원(민주·나주)은 “한전공대 입지는 모두가 공감하는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설립 주체인 한전에 맡기되 접근성·인프라·경제성 등 타당한 분석자료를 사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지 선정 기준으로 경제성은 물론 공동혁신도시 상징성이 크고 접근성이 좋은 곳, 에너지 밸리 연구와 클러스터로 역할 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휘 의원(국민의당·목포)은 “전남도도 시행 중인 사용승인 전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일부 단지에 그치고 있다”며 품질검수 범위 확대와 품질검수단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www.housecomma.com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성단지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첨단우리병원에서는 척추 중점 치료합니다

✓ 척추관 협착증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비움으로 다가오는
첨단우리병원